



부산상공회의소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4년 4월 24일(수) 배포즉시

담당 :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  
노희태 주임 (990-7044)

## 제261차 부산경제포럼 개최

###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높은 지역기업인들을 위한 강연 개최

#### ▶ 실질사례 통해 기업이 실천 가능한 디지털전환(DX) 전략 제시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24일 오전 7시 부산롯데호텔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전환(DX)과 관련하여 ‘DX가 어려운 기업을 위한 실현가능 DX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61차 부산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오늘 포럼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 신헌춘, 박사의 부회장이 참석하였고, 이 외에도 BNK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 한국은행 김기원 부산본부장, 동명대학교 전호환 총장 등 주요 기관장과 지역기업인 210여명이 참석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부산경제포럼은 1996년 5월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28년 동안 꾸준히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아침에 진행하고 있는 조찬포럼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분야별 강사를 초청하여 지역CEO들에게 최신트렌드를 전달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오늘 포럼에서는 국내를 대표하는 디지털 및 데이터 사업 구축 전문가로 활동 중인 (주)하이퍼라온지 김정인 대표를 초청하여 △디지털전환(DX) 분야와 종류 △기업 사례 △전략과 효과 등 지역기업과 경영자를 위한 실천 가능한 DX전략을 제시하였다.

김 대표는 강연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DX)전환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실용적이고 사소한 변화가 DX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얻고, 기업경영에 접목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첨 부 : 행사사진 1부.